

#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6.127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02 시론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 03 종합

사랑에서 \_ 건축개혁과 건설개혁도 필요하다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지난 5월 15일 '제6회 이사회의' 개최  
전라남도,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남소방, 대형 건축공사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우수 건축인 양성을 위한 목포공고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광주건축사회, KT전남/전북고객본부와 AI 소형주택솔루션 MOU 체결  
광주건축사회, 북구청 불공정 입찰공고 사항 개선시켜

## 08-09 전북 지역 뉴스

익산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전주지역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로 단체명 변경하며 공적조직으로 발돋움  
전라북도, 대형 건설 현장 화재 및 재해 예방 특별점검 진행해

## 10 설계경기

해남군 땅끝가족아울림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 11 종합뉴스

'건축사자격시험', 오는 6월 20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  
제15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20),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

##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오늘도 법정에 있습니다  
한 편의 시 \_ 아름다운 인연  
세상사는 느낌 \_ 코로나19로 변화한 우리의 삶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강미현**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건축사  
ygcocoon@gmail.com

- 2004. 6. - 현재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 저서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2014 / 효형출판)

“집을 짓고 싶은데, 좋은 시공자 좀 소개해 주세요!”

건축주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행위에 대한 절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건설업 면허의 필요 여부 등 건축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안내하기가 쉽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좋은 시공자 소개란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대형 공사라면 소개가 쉽지만, 이유는 낮고 업무량은 많은 단독주택 시공을 반기는 시공사(건설사업자)는 쉽사리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주택(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은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면적 100㎡(30평) 미만의 작은 집이라도 공사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작은 주택이라도 신중하려면 면허를 갖춘 건설사업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설계자인 나도 현장에서 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만나기는 어려운데, 일반인인 건축주들이 어떻게 면허가 있는 좋은 건설사업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

문제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 대상인 공사현장에서조차 책임성 없는 시공(예를 들면 면허대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공사 등록을 위한 장벽이 높다. 법인의 경우 3억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개인의 경우 7억 원 이상) 5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억의 자본금과 기술자를 투자하여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원이 낮은 소규모공사에 기술자를 상주시키면서 매달 들어가는 월급 등 관리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에서만 따져본다면,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처지에서는 손해 볼 것이 거의 명백한 소규모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연면적 200㎡ 이하 공사는 상당수 건축주 직영공사로 신고가 된다. 이때 사업자등록도 안 된 개인이나 면허 없는 개인사업체와 공사계약이 주를 이루는데, 공사의 품질과 책임 그리고 전문성까지도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가 직접 떠안는 실정이다. 소규모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각종 비용 문제, 공사품질 문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공공연하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선임한 현장관리인 역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서류에 그치고 있다. 현장관리를 못 하는 현장관리인 제도는 절차상 현장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건축주에게 오히려 비용만 가중시키며 건축계를 향한 불신을 키우기만 한다. 건축주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한 알 수도 없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며 운에 기대는 상황이 되어진다.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소규모 공사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은 건축주에게 혼란을 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도 건축사가 법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설계도서라도 만들어지니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가 동반되지 않은 소규모 공사일 때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설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계과정이 생략된 채 시공을 하다 보니 우선 순위의 결정이나 각 공정 간의 간섭 등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설사업자 대상이 아닌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현장일수록 비전문가가 경험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제대로 고쳐지는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건축주 스스로가 관리감독을 해내야 한다. 어떤 업자를 만날지 운에 맡겨진 시장, 건축 시장에서 5,000만 원이란 돈은 이렇게 가치 없이 취급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급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3분의 1인 33.2%이다. 많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 200만씩 저축할 때 2년은 넘어야 손에 쥌 수 있는 큰돈인데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공사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건설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주가 된다.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평생의 로망인 집을 지어보고 싶거나 혹은 자신의 건물을 고쳐보고자 건축 시장의 문을 두드렸을 뿐이다. 그런데 소규모건축의 법적 제도적 모순에서 오락가락하며 결국 책임은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비전문가인 건축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나서서 현실을 직시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은 소규모 공사에서의 공사품질 확보와 안전관리이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면허 기준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진입장벽을 낮춰 건설한 개인사업자들을 키워내고 이들이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개인 사업장에 속한 건설기술자들의 경력 관리도 교육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소규모 공사에서 건축사의 적극적인 시공참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건축사들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건축적 기획을 설계도서에 담아냈다. 현장에서는 공사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을 했다. 설계자의 시공참여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책임성 있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사의 역할의 재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도시건축 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 골목길 재생 등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섬세하게 지역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도시재생이 화두다. 노인 등 거주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업의 목적과 부합된 우선순위 결정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현장에서의 디자인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건축공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언제까지 건축 없는 건설의 시대에서 살아갈 것인가. 소규모 공사에서 그 전기가 마련되어 건축사들이 건설에서 건축으로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삶과 공감할 수 있는 현장성 있는 건축프로세스 구축이 되면 좋겠다.

이제는 건축사가 기존의 역할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과정에서 시민의 삶과 공간구축 현장에 더욱 긴밀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작은 규모의 건축행위라도 고유한 우리의 생활양식과 역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기존의 소규모 건축시장은 시공자의 경험 위주로 진행되며 특별한 관리체계가 필요치 않았다면, 현대사회의 건축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이에 걸맞은 관리체계가 필요해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일상의 삶의 공간을 보다 좋은 품질로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 관계자들의 노력과 책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규모 공사의 제도가 현실성을 반영한 제도로서 시민들이 더 이상 건축 때문에 10년은 늙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되어 건축 기간 내내 건축주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복을 전문가가 지켜주길 바란다.

보다 가볍고 강력하게

MIDAS ARCHIDESIGN STANDARD 정식출시!

DWG 전 버전 호환 + 연속출력 + DWG 도면분리 + 리습 + 무제한 업데이트

MIDAS 구매문의 1899 - 9260 www.midasCAD.com

MIDAS ARCHIDESIGN STANDARD 출시기념 프로모션

40만원 - 35만원 1년 라이선스

120만원 - 100만원 3년 라이선스

200만원 - 150만원 5년 라이선스

(Lic기준, VAT별도)



사랑에서 \_ 예수일곱 번째

건축개혁과 건설개혁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나는 시대다.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낱설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와 개혁 까지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변화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잊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해버리는 대상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건축문화에 대한 개혁, 건설현장에 대한 개혁이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건축개혁과 건설개혁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 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참사였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왜 그러한 사고를 인 재라고 분류하는 것일까? 혹시,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은 아닐까? 또한, 변화하지 않거나 개혁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재해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는 아닐까? 건축문화와 건설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우려 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인식과 의식에 대한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건축물을 비롯한 온갖 시설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영위하지만, 건축에 관한 교육이 나 시설물 사용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건축물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보다는 재산적 가치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인 식을 건전하고 선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급자 혹은 생산자 측면에서도 그와 유사한 과제가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단순노무자로 시작해서 일정 정도의 경험을 쌓으면 숙련공으로 인정하는 경유 가 대부분이다. 해당 기술자격을 공인받은 적도 없고, 공식적인 기술교육을 받 은 적도 없이, 오로지 현장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만으로 현장기술자 대우를 받 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공사 진행과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인력난까지 겹쳐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개선방안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지적될 때마다 법과 제도는 꾸준히 보완되어 왔지만, 편법과 위장으 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할 때도 있었고, 비현실적인 대안과 과도한 규 제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사회적 여건과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또다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관심과 망각, 수박 겉핥기식의 일맹이 없는 대책, 탁상행정에서 지나지 않은 무성의한 대응 등이 이번에도 되풀 이될까 몹시 걱정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과 확고 한 의지를 고대하고 있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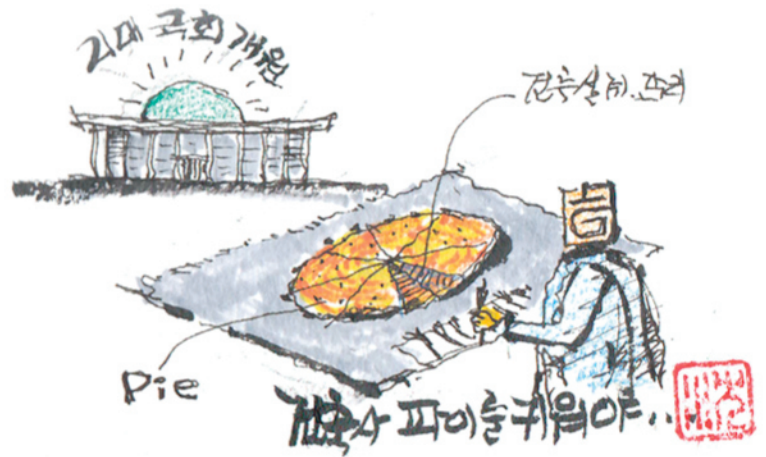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 가.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50m 이하,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40m 이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61조제1항)
    -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 위 의미가 불분명하여, 방송통신시설과 별개의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 종교시설 침탑 등 공작물 신고대상 확대(안 제118조제1항제2호)
    - 종교시설 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장식탑, 기 념탑 등의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함.
  - 라. 공장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
    - 공장 건축물에 물품을 입고 출하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미터까지 건축 면적을 완화하도록 함.
  - 마. 다중주택 규모 확대(영 별표1 제1호가목3)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동 주택 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개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함.
  - 바. 다중이용시설 위임기준 마련(영 별표1 제4호거목)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별지 제30호의2 서식)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주)대광판넬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화양면사무소

정운기 건축사 / (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장영2길 4, 3층  
Tel. 061-744-5100



대지위치 : 전남 여주시 화양면 나진리 16-10의 5필지 / 대지면적 : 1,629㎡ / 건축면적 : 516.66㎡ / 연면적 : 1,407.42㎡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면사무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시멘트알루미늄성형판, 큐블릭



부지의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협소한 대지 내에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대상과 시간이 다른 면사무소와 중대 본부를 2개의 동으로 분리하여 배치하였고 대지의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한 설계로 전면에 주민들을 위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였다. 가장 접근이 용이한 길목에 주 출입구를 배치하고 주 이용대상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내부공간을 형성하였다. 면사무소의 기능에 충실한 평면구성과 동시에 데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였다. 바닷가 조망과 충분한 자연채광을 고려한 입면 계획으로 여수시민의 개성적인 경관을 창출해냈다. 여수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색채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시각적 편안함을 돕고 조화로운 색채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여수의 '다도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큐블릭을 통해 '다도'를, 루버를 통해 '바다의 파도'를 표현하였다.



## 전남건축사회, 지난 5월 15일 '제6회 이사회의' 개최

도회 회의실에서... 신임 부회장에 한형민(예향 건축), 최세호(빛가람 건축) 선출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5월 15일 도회 회의실에서 임원 1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부회장 선출의 건에서는 부회장 임기 만료와 회칙개정에 따른 부회장 1인 증

원으로 순천 지역의 한형민 건축사(예향 건축사사무소)와 나주 지역의 최세호 건축사(빛가람 건축사사무소) 2인을 선출했다. 또한 전라남도 건축사복지회 조성금액 배분 방안에 대한 건에서는 2015년~2019년 5개년도 복지회 조성금액에 대한 배분 방안을 협의했다.

이 밖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제6회 이사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신임 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추가하여 선출한 만큼 수많은 도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이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다중이용건축물 3년마다 정기점검, 건축물 해체 허가제 도입 등

전라남도는 최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등은 앞으로 대지와 높이, 형태, 구조,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계속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철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 해체공사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부실 점검 방지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록 적정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한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비롯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등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27개소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73개소를 모집·등록해 시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실제 점검수요와 이행실태를 살피며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을 비롯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의 관리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점검 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정착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며 "건축물 전 생애를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소방, 대형 건축공사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18개소 일제 점검 결과... 과태료 7건, 시정조치 40건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 공정률 50% 이상 등의 도내 건축공사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4주간 실시됐다. 특히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비롯 무허가 위험물 단속,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조치사항 등이 집중 점검됐다. 전남소방본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33개 건축공사장에 대해 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0건의 시정조치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을 비롯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이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향후 건축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의법조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목포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대상 건축물 197개소, 6월 14일까지 1차 육안조사 후 2차 정밀조사



목포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75개소, 일반건축물 122개소 등 총 197개소로 오는 6월 14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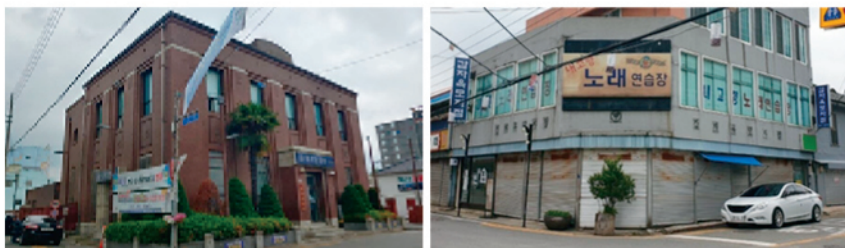
1차로 육안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 2차로 전문 구조기술사가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 기울기와 주요부재 간 접합부 안정성 및 변형 여부, 벽체 및 개구부 수직 경사균열 여부, 주변 지반 침하 및 용기, 바닥 포장 균열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설물의 안전 위험도가 클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보수·보강 사항 발생 시에는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DB 구축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유자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 목포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공적 활용 기반 확보

갑자옥 모자점,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매입 건축자산의 가치에 맞는 정체성 복원 기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이 근대건축자산 매입을 시작하며 본격화 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의 노포(老舖) '갑자옥 모자점'과 '구(舊) 호남은행 목포지점'(등록문화재 제29호)을 매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공적활용을 위해 첫 번째로 매입한 '갑자옥 모자점'은 100여년 전 당시 목포에서 가장 번화했던 조선인 가게로 근대도시 목포의 영광과 쇠락을 함께 한 곳이다. 시는 이 노포(老舖)를 모자박물관으로 보수 정비하여 그 가치와 정체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는 차치하고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라 매각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친께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기를 바라셨다"며 "이 건물을 초석 삼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구(舊)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호남 최초 민족계 은행이라는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곳으로, 목포역과 원도심 중심상권 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작점이다.

한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 공간 단위 등록문화재 제718호(2018. 8. 등록)인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약 500여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 및 경관 훼손 건축물 매입을 마무리한다.

### 순천시 덕연동, 신도심 최초로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선정

연향동 패션의 거리 일원 대상으로 사업 추진 예정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소규모 재생 공모사업'에서 연향동 패션의 거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인구감소, 사업체감소, 노후 건축물 비율 등 침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거점 공간조성, 마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연향동 패션의 거리 일대는 지난 4월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 등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21일 최종 선정됐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 준비를 위해 관할 동 주민대표·센터·행정과 함께 집중검토회의, 주민리더 의견 수렴, 사업 현황 탐방 등을 통해 면밀한 사업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 사업'은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시에서는 관할 주민조직인 덕연동 마을계획단과 함께 마을계획 수립, 안전지도 제작, 우범지역에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입자와 건물주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축제를 기획해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4년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향동, 중앙동 일원이 선정되어, 국토부 최우수 평가 3회 ('15~'17년), 도시재생 한마당 전국 지자체 대상 ('17년, '19년) 수상 등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 응모대상 :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
- 응모구분 : 주거와 비주거 / 우수작 1개소, 가작 2개소 선정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일간
- 접수방법 :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
- 문 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79)

### 전남 회원동정

- 변경(상호&소재지)
  - 전재식 건축사 / (주)강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899, 2동 202호
- 변경(소재지)
  - 조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조 / 전남 여수시 시청서2길 51-5
  - 김상조 건축사 / (주)신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3길 10, 3층
- 결혼
  - 조익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진 / 장남 결혼 - 05월 16일(토)
  - 문금호 건축사 / 서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04월 25일(토)
- 부고
  - 주경인 건축사 / 신안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4월 30일(토)



明 building

오승룡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포~유디자인  
 광주 남구 백양로 7, 5층  
 Tel. 062-361-0053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52-2 / 대지면적 : 545.00㎡ / 건축면적 : 279.30㎡ / 연면적 : 867.48㎡ / 건폐율 : 51.25% / 용적률 : 149.38% / 규모 : 지상 4층  
 주용도 : 휴게음식점, 학원,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중앙목구조

**광주건축사회, 우수 건축인 양성을 위한 목포공고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지난 27일 광주건축사회에서... 졸업생 취업 지원 및 건축인 교육 협력 위해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와 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상호)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불황으로 취업이 힘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건축인 양성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27일 광주건축사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이영문, 정태호 부회장과 목포공업고등학교 김상호 교장, 전남교육청 지방행정사무관 강동식 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 건축인 교육 양성에 협력하고, 현장학습 및 우수 졸업생 취업 연계 상호 지원과 건축 관련 선진 기술 공유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이번 산학협력 협약이 미래 광주 건축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 건축인 인력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호 교장도 "양 기관이 희망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목포공업고등학교 외에도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건축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KT전남/전북고객본부와 AI 소형주택솔루션 MOU 체결**  
 6월 10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주택 설계 시 해당 솔루션 적용 권장 및 홍보하기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6월 10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 KT전남/전북고객본부(본부장 박용만)와 최첨단 AI(인공지능) 소형주택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AI(인공지능) 소형주택 솔루션은 KT의 가지니 음성인식 플랫폼과 (주)코맥스사의 플랫폼을 연동해 오피스텔, 빌라, 타운하우스 등 중소형 주택 단지에 최첨단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KT는 홈네트워크 전문기업인 (주)코맥스와 공동으로 중소형 주택 단지에도 공급 가능한 'AI(인공지능) 소형주택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고가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중소형 주택 단지에 AI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형 주택 단지에 AI 서비스가 공급되면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입주자들은 안방, 거실, 주방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 기기(조명, 난방, 가스, 보일러 등)와 IoT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을 음성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정보(날씨, 교통, 일정, 라디오 등), 각종 융합 서비스(음악, 키즈, 교육 등), 거실 월패드를 통한 방문객 확인 방법 서비스 등 편리한 서비스를 최첨단 AI 서비스로 누릴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는 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 회원사 홍보 지원 및 솔루션 정보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용만 본부장은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건축 설계 시 AI(인공지능) 소형주택 솔루션을 적용한 '최첨단 AI(인공지능) 명품 주택' 공급으로 고객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현구 회장은 "우리 건축계에서도 건축설계 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도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복구청 불공정 입찰공고 사항 개선시켜**  
 강현구 회장 문인 구청장 직접 만나 협력업체 지역제한한 내용 개선공고 이끌어 내...



광주 복구청에서는 지난 5월 말 '의회동 청사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공고하면서 대표 건축사사무소와 전기, 통신, 소방 등 외주협력 설계업체를 광주, 전남으로 지역 제한하였다.

이에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복구청에서 문인 구청장을 직접 만나 해당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문인 구청장은 불공정한 사항임을 인식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재공고할 것을 업무지시했으며, 결국 복구청은 지난 6월 2일 대표사 및 협력업체의 참가지역을 조정해 재공고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광주광역시청, 지난 4월말에는 서구청에서 발주한 불공정 입찰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여 개선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향후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입찰공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건축계 인사들과 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협의**  
 6월 3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등 건축계 인사 참석



지난 6월 3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이상배 국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오세규 회장, 광주시 건축위원회 주석중 위원 등 광주지역 건축계 인사들이 다

수 참석한 가운데 건축설계공모 선진화를 위한 협의 회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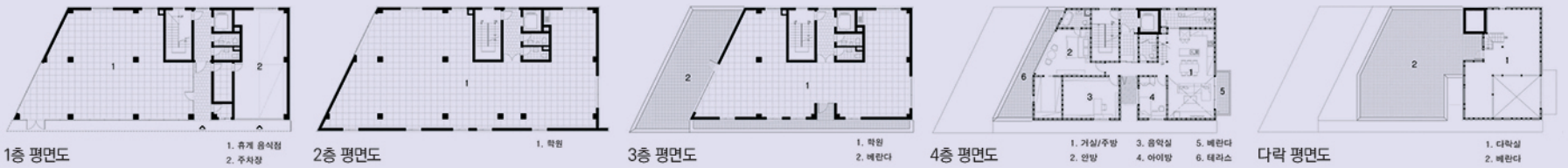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모든 건물들이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작은 건물의 건축주들까지 자기 건물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라고, 건물들은 옆의 건물과 달라져야만 한다.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다. 비슷한 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늘어서 있다. 유럽의 도시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도시의 오래된 지역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단순하고 소박한 건축, 하지만 좋은 매스와 비례를 가진 아름다운 건축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대지는 접근이 불편하고 길이 좁아 답답하다. 배치계획의 주안점은 좁은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건물은 전면도로에서 최대한 물러나 뒤에 위치하고, 길과 건물 사이에 작은 광장을 만들었다. 정북 방향으로는 일조권사선제한이 있어 매스가 줄어드는데, 그 외부공간에 휴식을 위한 옥상정원을 만들고, 주택에는 다락방에서 통하는 루프탑 공간을 만들어 여유로운 외부공간의 경험을 제공하려 하였다.

4층에는 건축주를 위한 단독주택이 위치한다. 자녀의 교육과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량 목구조로 시공하였다. 아이가 놀 수 있는 다락과 마당 같은 옥상을 두고 가족 전용 엘리베이터와 차고를 따로 계획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8일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건축설계공모 표준지침(안)에 대해 보완하는 자리였다. 이번 협의 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보완 내용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건축설계공모 최종 표준지침(안)을 광주시 관계 부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상배 국장은 "최종 표준지침(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공모방식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강현구 회장은 "광주 건축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완성한 해당 표준지침(안)이 건축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전임회장,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합류**  
국가건축정책 비전·목표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광주지역 건축사로는 최초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지난 5월 19일 출범하면서, 호남지역에서 위촉된 위원 중 광주지역 건축사로서는 처음으로 ㈜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가 합류하게 됐다.

그동안 건축 전공 교수들의 광주, 전남지역 위원회 위원 위촉은 있었으나 국가공인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는 최초로 위촉된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전문가로 호남권에서 두 명이 위촉되었는데 정명철 건축사와 함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도 함께 위촉되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광주지역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명철 건축사는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건축사회장직을 역임하는 한편,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지역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축문화정책 수립 및 지역건축인 양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제6기 국건위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위촉됐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광주건축사회 회원 정재한 건축사(모건아트 건축), 광산구청장 표창 수상**  
광주건축사회 광산구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위한 노력 인정돼

광주건축사회 소속 정재한 건축사(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4월 말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재한 건축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주건축



사진 왼쪽에서 3번째 정재한 건축사

사회 광산구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로가 인정됐다.

또 건축사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한 자세로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정재한 건축사는 1997년 12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8년 3월 입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광주건축사회 이사와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광산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토뉴스**



지난 6월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광주지역 4개 대상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대상지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단과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에너지밸리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도첨국가산단, AI 융복합지구-첨단3지구) 4.371km<sup>2</sup> 규모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외 회원 일동은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축하하며, 회관 앞에 축하 현수막을 부착했다.

**광주 회원동성**

- 결혼
  - 장경록 건축사 / 옐림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05월 30일(토)
- 부고
  - 김한일 건축사 / 신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6월 06일(토)
  - 김형준 건축사 / 모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6월 08일(월)
  - 강찬수 건축사 / 광림 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06월 09일(화)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본 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익산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지난 6월 3일 익산시청 방문해 장학금 200만 원 기탁해



익산지역건축사회(회장 김경태)는 지난 6월 3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태 회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시 인재 양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감염병으로 지역사회가 힘이 드는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좋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사랑장학재단 정현울 이사장은 “어려운 시국에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 준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시가 명품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지역건축사회는 1965년 최초 설립, 현재 익산 소재 건축사사무소 46개소(회원 수 47명)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에는 심보현(함열) 주택 신축설계 및 성금 200만 원, 2017년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00만 원, 2018년 푸른익산가꾸기사업 및 사랑의연탄나눔 행사에 각 500만 원, 2019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전주시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로 단체명 변경하며 공적조직으로 발돋움**

올해 초 회칙 개정과 도회 이사회 승인 후, 6월 1일 본 협회로부터 현판 받아 공식 운영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전주시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협회 규정에 따라 지역건축사회로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6월 1일부터 정식 운영기로 하였다.

전주시건축사회는 상조회 형식으로 빌어 1989년 2월 3일 설립되어 전라북도건축사회 직할 건축사회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공식 기구가 아니다 보니 전주시 등 대외 기관에서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전주시 회원들을 위한 대외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바, 이번 지역건축사회 설치를 계기로 명실공히 공적조직으로 발돋움하고 대내외적으로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위상을 높여 회원의 업무 편의 제공과 협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으로는 이태원 전주시건축사회 회장이 잔여임기(2021년 3월)까지 업무를 수행기로 하고 사무국은 전라북도건축사회 사무처 내에 두기로 하였다.

**전라북도, 대형 건설 현장 화재 및 재해 예방 특별점검 진행해**

지난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140곳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위험요소 집중 점검

전라북도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발생과 관련해 도내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시공 중인 도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14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 및 화재예방 업무 관련 부서(지역정책과 37개소, 주택건축과 33개소, 방호예방과 70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자재 사용,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도, 시군,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형공사장 1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130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시·군과 함께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 ‘공사장 내 대피로 확보 상태’, ‘가연성 자재 및 인화성 물질 관리상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자 입회 등 안전조치 여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정 이행 여부’, ‘공사장 내 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태’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이행조치 결과를 재확인하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

도·시·군, 주민 협업 통한 중앙공모 대응으로 6곳 선정, 국비 5억 원 확보

전라북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4개 시·군 6개 사업(전주시(3), 익산시, 임실군,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8~2019년도에 선정된 18곳을 포함하여 총 24곳에 국비 26.8억 원 등 총 53.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전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축제 기획, 주민소식지 발간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자발적인 계획과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공모 대응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10개 시·군 15개소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주민대표의 발표평가 준비를 위하여 교수 등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사전 발표 컨설팅을 5월 8일에 진행한 결과 최종 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레이크 빌딩**

이성영 건축사  
(유)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6길 4, 4층  
Tel. 063-252-3378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1 / 대지면적 : 778.90㎡ / 건축면적 : 464.20㎡ / 연면적 : 2,987.08㎡ / 건폐율 : 59.59% / 용적률 : 296.76%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복층유리, 제물치장콘크리트, 편칭메탈



### 전주시, '해피하우스 주택리폼 교육' 참여자 모집

오는 6월 19일까지 접수... 단독주택 거주민 대상 집수리 방법 교육 진행

전주시가 노후 단독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집수리 교육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의 단독주택 거주민들이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해피하우스 주택리폼(집수리) 교육'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의 수리와 수선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인후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시는 송이석 별별작업소 대표와 신기성 전주도배도장타일목공건축학원장, 노은미 한국정리·수납 컨설턴트협회 전임강사, 주남철 만년건축설비 대표 등을 초청해, '목공 DIY 실습', '도배·도색 실습', '정리수납 교육', '부속품 교체' 등을 주제로 총 4회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세부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해피하우스 노송센터(1577-6513), 인후센터(1577-2589), 완산센터(1577-6514), 팔복센터(211-7741)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전주시 덕진구,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총 2억 5천만 원을 들여 '2020년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주택보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덕진구는 올해 총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과 4세대~19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2020년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월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옥상방수', '지붕개량', '외벽도색', '담장보수', 'LED 전등 교체 사업'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금암동 에덴연립주택 등 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금액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노후 정도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현재까지 영창맨션 등 4개 단지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오성아파트(다동) 등 6개 단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60개 단지에 총 35억 원의 주택수선비를 지원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11개 단지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정읍시, 공공 건축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할 총괄계획가 제도 본격 시행

지난 5월 8일, 건축 분야에 한광야 교수와 디자인 분야에 이석현 교수



정읍시가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총괄계획가(건축, 디자인) 제도를 시행한다.

총괄계획가는 최초 사업기획부터 준공 시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과 디자인을 구상·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통해 정읍시만의 특화된 이미지를 이용한 도시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읍시만의 정체성을 살릴 창의적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5월 8일 위촉식을 갖고 건축 분야에 한광야 교수와 디자인 분야에 이석현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한광야 교수는 현 동국대 건축학부 교수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사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박사학위 소유자로 서울 도시재생 국제 현상설계 당선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디자인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이석현 교수는 현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일본 쓰쿠바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학위와 한국도시계획학회 공공 디자인 위원장 등 다수의 연구 활동으로 학계로부터 디자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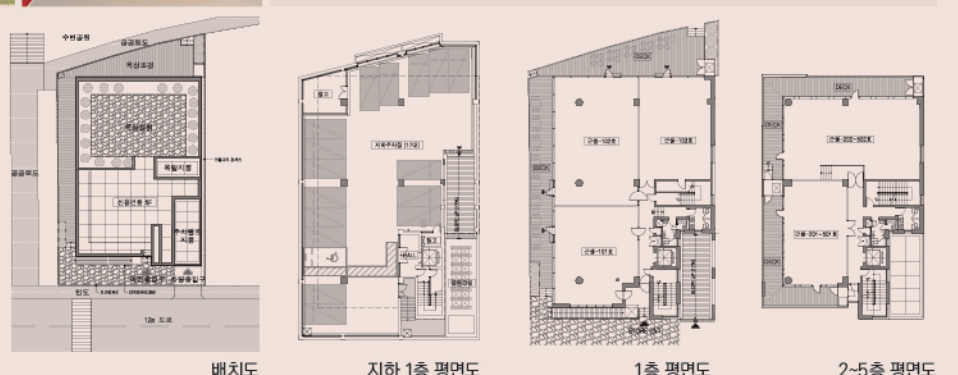
###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이한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3-6
- **휴업**  
- 정희진 건축사 / 힘찬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오경택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4길 10
- **결혼**  
- 박보경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시앤에스 / 장녀 결혼 - 06월 14일(일)  
- 김동균 건축사 / (유)토우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6월 20일(토)  
- 최창현 건축사 / 청운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6월 27일(토)
- **부고**  
- 오요안 건축사 / (주)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5월 12일(화)  
- 장병길 건축사 / (주)서동 건축사사무소앤앤전진단 / 빙부상 - 05월 12일(화)  
- 박양열 건축사 / 송호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6월 06일(토)



본 건물은 덕진구 장동에 계획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분양건축물이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타 구역과 다르게 본 건물이 위치해 있는 구역은 6개 필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권을 구성하기에 너무 적은 필지로 분양 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사이트가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 근생 용지의 가장 끝에 위치하여 3면이 기지제(연못) 및 주변으로 시원하게 열려있는 경관적, 위치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장점을 설계 및 분양의 주요 포인트로 삼았고, 인접해 있는 5개 필지의 건물과 공간적 차별성을 두기 위해 스킵플로어(SKIP FLOOR), 3면 테라스(TERRACE), 적층형 제물치장콘크리트 외관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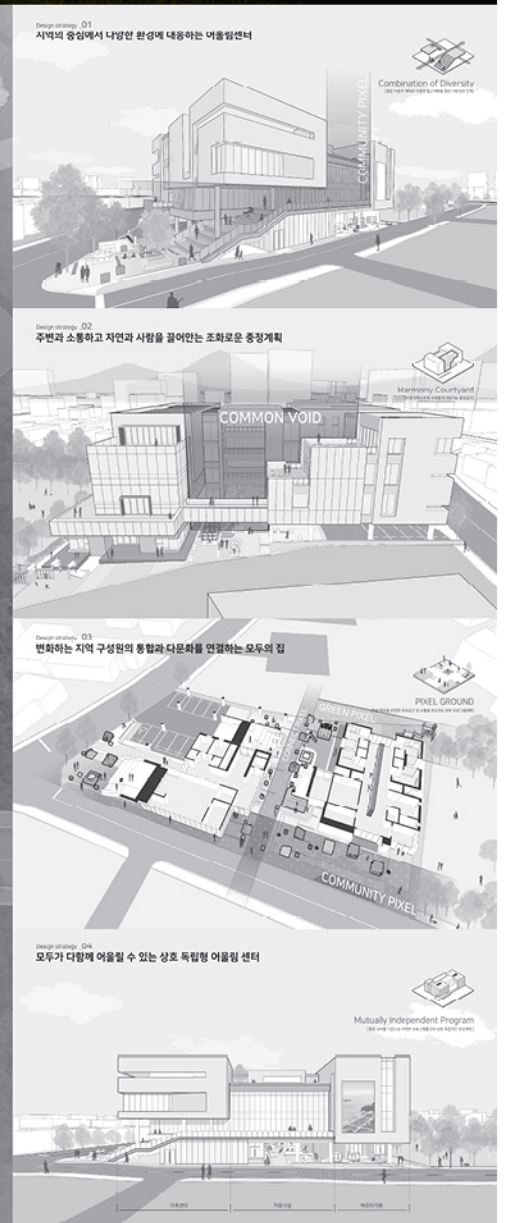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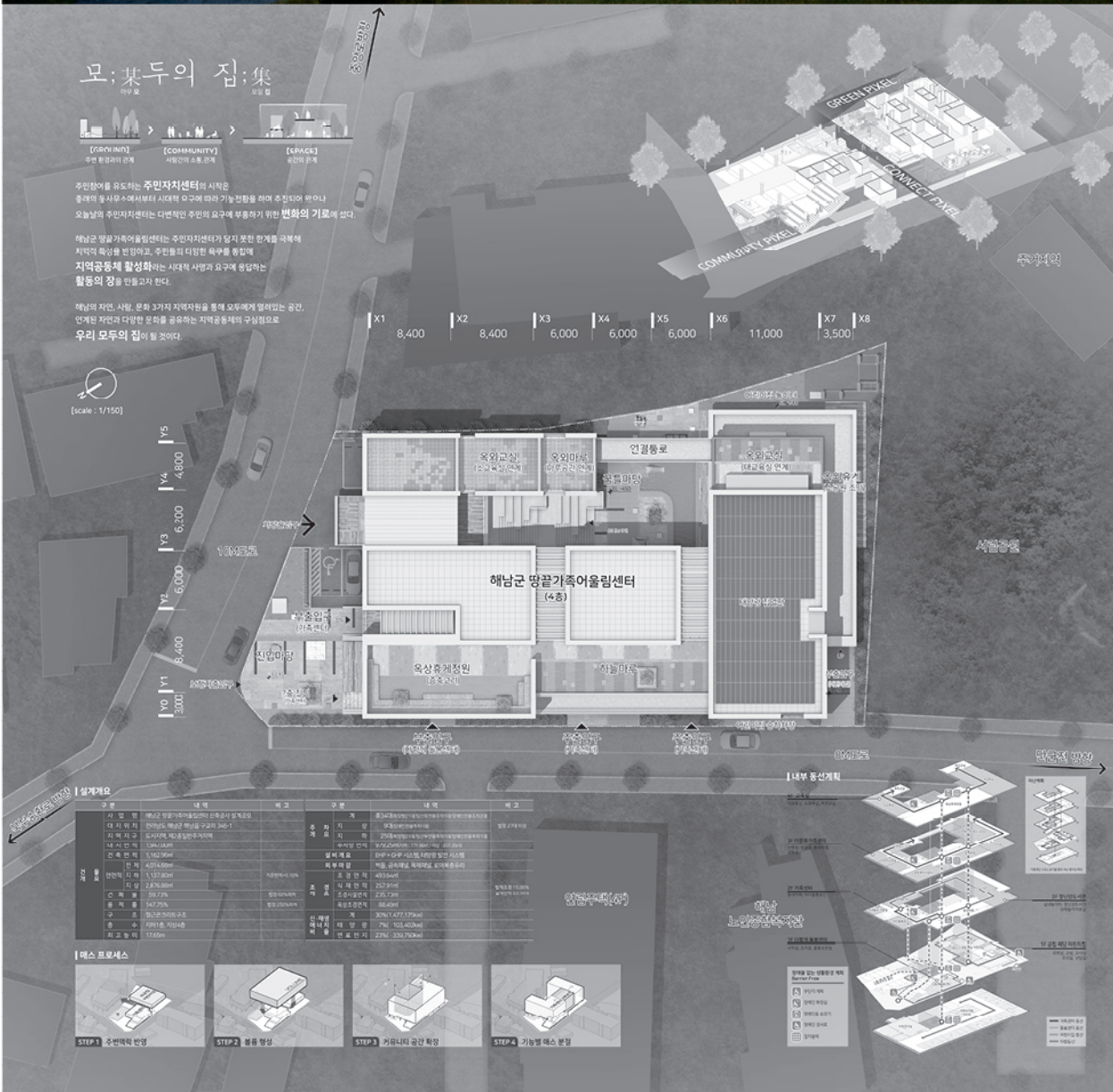
#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우수작 : 오에스엠 건축사사무소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출산율 성과달성 및 다문화가족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고자함과 더불어 주민들의 통합적인 가족지원과 주민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두어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모를 진행 함.

- 대지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46-1번지
- 연면적 : 4,010.40.00㎡(±5% 이내)
- 대지면적 : 1,947.00㎡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사비 : 12,000백만 원 (VAT 포함)

**당선작**  
 정현아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 ‘건축사자격시험’, 오는 6월 20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

전국 약 30개 시험장에서 일제 진행... 호남권은 광주 성덕중과 전남공고에서



2020년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20일 전국 6개 권역 약 3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시험방역관리 안내서’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된다.

응시인원은 9,623명이며 이는 작년 9,340명보다 약 3%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호남권역에서는 광주 성덕중학교와 전남공고에서 진행되며 장소 및 자세한 시험 일정에 대한 안내는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15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20),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11월 21일까지 진행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및 화합, 축제의 마당을 조성하고자 제15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20)을 오는 11월 18일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월 21일까지 4일간 ‘건축사와 함께하는 KAFF 2020’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시에는 100여 개의 건축자재 관련 업체가 참가하며 다양한 건축자재가 소개될 예정이다. ‘건축자재추천제’는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하여 추천한다. 이와 함께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과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 건축사 실무교육, 건축 관련 세미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등도 함께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사와 건축전문가들 간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국내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인 만큼 건축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

건축사와 예비건축사, 공직자 대상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교육대상자 모집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0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교육’을 6개월 동안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을 실시하는 6개월 간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한옥기술종합센터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4년간 실시하는 동안과 정부 부처의 내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작년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전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이전에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 교육은 전국의 건축사와 예비건축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집은 6월 22일까지, 교육은 7월 4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 교육은 고창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초반과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이론의 경우 한옥 강의실인 심천학당에서 실시하고 실습은 실습실에서, 그리고 수료식은 박물관에서 졸업작품전과 같이 실시하여 전북대학교 한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내용은 한옥과 관련된 특강, 한옥이론교육, 한옥실습교육, 한옥마을 및 건축 답사, 한옥시공실습 등을 통하여 한옥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수진으로는 전북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한옥 관련 유명 교수진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고 인간문화재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전북대학교는 실습비를 지원하여 시공 실습 결과물인 정자 건축을 실습이 끝난 뒤 버리지 않고 이를 캠퍼스 본부 앞과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고창 아산초등학교 등 공공기관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활용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좋은 예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생들이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에 참여하여 넓은 담장 페인트칠하기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고창군의 농촌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도 참여하여 사회의 고급인력이 전문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한옥 수출도 추진하고 있는데 호주, 미국, 독일, 불가리아 등과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교육기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옥캠프’, ‘외국인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등을 운영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한옥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고창캠퍼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실습장을 설치하여 한옥기능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내에서는 대학원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한옥전공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옥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참가 문의는 한옥기술종합센터(Tel. 063-219-5221)로 연락하면 된다.

### 국토부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실시

오는 7월 10일까지... 공공건축물,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



국토교통부는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공공건축상은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는 상이다.

올해 공모는 공공건축물,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3점 등 총 8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부문의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과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게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 또는 ‘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 동영상,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다.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홈페이지([www.molit.go.kr/2020publicbuilding](http://www.molit.go.kr/2020publicbuilding))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감정원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건축법」 제25조 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 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용도	공사비(원/㎡)	용도	공사비(원/㎡)
다가구 주택	1,509,500	오피스텔	1,548,167
아파트	1,443,500	근린생활시설	1,264,900
연립 주택	1,730,800	창고	650,357
다세대 주택	1,351,000	공장	805,750
다중주택	1,487,667		

〈산출 근거〉

1. 본 자료는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2019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산출하였음
2. 산출방식 : 용도별 평균값(건물표준단가+부대설비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음



책 소개 \_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오늘도 법정 에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사회부 저 / 고선윤 역 / 학교재 / 2016. 12. 26.



아사히신문 사회부의 재판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하루 종일 법원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단 몇 줄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 사회부 기자가 기존의 기사 형식과 다르게 재판의 시작과 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기사를 써낸다.

신문에 신기에는 너무 길어 거절당하고 기자는 "인터넷에서만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독자들이 읽어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온라인에서 아사히신문에서 연재를 이어간다고 한다. 이 책은 매일 법원 방청석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마음에 또렷하게 남은 사건들 중 총 29편의 범죄 사건이 담겨있다.

범죄자들의 내면을 보게 되는 이 '작은 사건'들을 정리한 짧은 글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어쩌면 나도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이 있고 그것이 뒤틀려 범죄로 이어지게 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왠지 남 일 같지 않은 이야기와 부모와 자식, 부부 등의 혼란 관계들이 더욱 사건들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책을 읽는 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유독 기억이 오래 남는 사건이 있다. <'아내와 딸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 대한 판결>은 아들이 정신 장애 진단을 받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 가족에게 거친 말을 쓰고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경찰과 보건소,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거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난동을 부리는 아들이 잠든 사이 아버지는 가족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느껴 아들을 칼로 찔렀다. 그리고 그대로 아들 옆에서 잠을 잤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왜 옆에서 잤냐는 말에 아들을 기억하고 싶었다는 말을 한다. 이 사건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에 빠지게 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정신 치료에 대한 사회구조의 비판과 함께 말이다. 이것이 이들이 법정의 이야기를 담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증인들의 살아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의 일그러진 부분의 힌트를 찾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재판에서 거론되는 언어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누구나가 살기 좋은 사회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는 일로 이어진다면 좋겠다. 사회부 기자 이토 미도리의 말이다.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아름다운 인연

세상사 인연은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저절로 찾아 옵니다  
인간사 헤어짐도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꽃들은 꺼지지만  
내안에 있는 어떤것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안에 있는 별과 같이  
마음속에서 빛이 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  
별빛과 같은 인연  
참 좋은 인연은  
밤 하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세상사는 느낌 \_ 이 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코로나19로 변화한 우리의 삶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쓴 채 출근을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지난 학기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이번 학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국내·외 여행에만 영향을 주었지만, 현재는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영향은 지금의 대학교를 재학 중인 나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매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대학교 수업마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학기부터 계획하였던 것들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방학 기간과 학기 중 휴일을 활용해서 진행하려 했던 국내 건축물 기행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으며, 진행 중이던 공모전도 연기되었다. 심지어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중 많은 사무소들이 폐업을 하거나,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실제로, 졸업반 학생 중에는 예기치 못한 취직난으로 인해 졸업을 유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가깝게는 일상에서 게을리했던 손 씻기도 자주 하게 되었고, 사이버로 진행되는 강의로 인해 자기 계발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공적 마스크 공급과 K-방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나에게서는 숨 쉬는 것부터 취직까지 많은 영향이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삶 자체가 변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전염병은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지난 일상의 편안함은 불편함 속에서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회를 위해 건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이들도 사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준불연 DK보드  검색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별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